

# ‘笑話’ - 생활 속의 희극예술\*

이제우\*\*

## 들어가며

오늘날 옛사람들의 笑話를 읽어보면 그리 우습지도 않거니와 또 뭐가 우스운 건지 때로는 얼른 갈피를 잡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그것은 아마 시대가 바뀌어 생활문화 환경이 달라지면서 희극의 내용과 형식이 시효성의 제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또 자세히 살펴보면 옛사람들은 소화를 통해 단지 웃음과 재미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무료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그릇된 근성을 각성시키거나 왜곡된 세태를 비판하고 풍자하기 위한 목적도 품고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화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못마땅한 상대를 공격하는 ‘전투장비’이자 광범위한 대중을 교육하는 ‘교육공구’일 뿐만 아니라 무료한 생활에 활력을 더하는 ‘오락도구’로서, 이렇게 유발된 갖가지 웃음으로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

\* 이 글은 필자가 기 발표한 〈中國笑話의 研究課題와 重要書目〉(1998), 〈中國古代笑話의 갈래와 기교〉(2000), 〈清代 民間笑話集 《笑得好》의 인물유형과 사회성〉(2004) 세 편의 논문을 재정리 편집하여 2022년 8월 정년퇴임 기념 강연원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송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명예교수

## 1. 笑話

문학의 영역에서 ‘笑話’는 그 독특한 성질과 기능으로 인해 일종의 독립된 장르를 형성한다. 소화의 기본 특징은 ‘故事性’이다. 그것은 늘 인물과 사건에 대한 서술을 통해 웃음을 유발한다. 이 점으로 보면 소화는 기본적으로 ‘소설’로 귀속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소화에는 일반 소설과 확연히 구별되는 다른 특징이 많다. 그 중, 외형에서 드러나는 가장 현저한 특징은 작품의 언어가 극도로 절제된 ‘超小型’이라는 것이고, 내용에 있어서는 역시 웃음을 유발하는 ‘喜劇性’일 것이다.

소화는 반드시 웃음을 유발해야 하므로 강렬한 ‘희극성’, 즉 ‘골계(남을 웃기려고 일부러 우습게 하는 말이나 몸짓)에 의한 흥취’는 곧 소화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나 웃음이 결코 소화 자체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며, 그것은 단지 일종의 수단으로서 더욱 효과적으로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터져 나오는 웃음 이면에는 불량한 사상적·도덕적 행위에 대한 비판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화는 표면적으로는 발랄하고 해학적인 모습을 띠지만 그 속에 내재된 사상적 본질은 매우 근엄하다. 거기서는 언제나 ‘是非’의 관념이 정직하게 발휘되고 ‘愛憎’의 감정이 선명하게 표출된다.

## 2. 笑話觀

오늘날 현존하는 중국 고대소화는 明清시대의 것이 비교적 많다. 당시 소화의 기록자들은 비록 소화를 진일보 정리 연구하거나, 또 기록한 후 그것을 체계적으로 평가한 적은 없었지만, 그들 소화집의 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편자의 편찬동기를 보면 소화의 효용과 가치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여기서는 우선 명청대의 비교적 저명한 소화집 편찬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明朝의 趙南星은 그의 《笑贊》, 〈題詞〉에서 소화의 효용가치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옛사람이 전한 서적의 기록과 오늘날 볼 수 있는 것 가운데는 웃음을 자아낼만한 것이 적지 않으니 세간에 전하는 笑談은 곧 그것의 그림자일 뿐이다. 때때로 기억나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 그로 인해 턱이 빠질 듯이 크게 웃으니, 이는 외롭게 혼자 있을 때 마음의 답답함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또 名理를 담론할 수 있고 세상사에 통달할 수도 있으니 먹물을 묻혀 문장을 짓는 이들은 그 창끝처럼 날카로운 말의 助力이 진실로 적지 않은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흔 두 편을 붓가는 대로 적어 각각 贊하고 《笑贊》이라 이름한다.<sup>1)</sup>

清朝의 陳阜謨 역시 그의 《笑倒》, 〈小引〉에서 소화의 기능과 작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大地는 하나의 웃음판이다. 귀신 얼굴로 가장하기도 하고 원숭이 우리를 뛰어넘기도 한다. 교만한 말투가 갖가지로 횡행하고 추악한 모습이 온데 섞여 나온다. 나는 대성통곡하고 싶지만 이렇게 한가한 눈물을 마구 뿌리고 싶지는 않다. 나는 근심을 강그리 물어버리고 싶지만 또한 이 슬프게 처진 눈꼬리를 차마 붙들어 매놓고 싶지는 않다.客이 “듣건대 웃음을 사고 근심을 누르는 방법이 있다던데, 그대는 어찌 배우지 않으십니까?”라고 한다. 나는 “예, 예. (배우지요.)”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抱腹絶倒했겠는가? 慟哭絶倒했다네. 그래서 《笑倒》를 모아 엮는다.<sup>2)</sup>

1) (明)趙南星, 《笑贊》, 〈笑贊題詞〉, 周作人(編), 《明清笑話四種》(臺北: 華正書局, 1987), 2쪽: “書傳之所紀, 目前之所見, 不乏可笑者, 世所傳笑談乃其影子耳。時或憶及, 爲之解頤, 此孤居無悶之一助也。然亦可以談名理, 可以通世故, 染翰舒文者能知其解, 其爲機鋒之助良非淺鮮。漫錄七十二則, 各爲之贊, 名《笑贊》云。”

2) (清)陳阜謨, 《笑倒》, 〈笑倒小引〉, 周作人(編), 앞의 책, 116쪽: “大地一笑場也, 裝鬼臉, 跳猴圈, 喬腔種種, 醜狀般般, 我欲大擲一翻, 既不欲浪擲此閑眼泪, 我欲埋愁到底, 又不忍鎖殺此瘦眉尖。客曰: “聞有買笑征愁法, 子曷效之?” 予曰: “唯唯。” 然則笑倒乎? 哭倒也。集《笑倒》。”

이들은 공통적으로 우수를 풀어주고 번민을 없애주는 소화의 快樂性(娛樂性)을 언급하고 있다. 소화의 가장 직접적인 작용은 사람을 웃기는데 있고, 이 웃음은 바로 쾌락의 표현인 것으로 근심 걱정과 슬픔과 번뇌를 몰아내어 의기소침한 정서로부터 쾌활한 정신을 진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明朝의 馮夢龍은 그의 《笑府》, 〈原序〉에서 소화의 大衆性(民衆性, 公共性)을 다음과 같이 설파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이야기일 뿐이며, 모든 이야기는 웃음일 뿐이다. 천지 음양의 혼돈과 개벽, 역대 임금의 禪讓과 誅伐, 이를 본 자 그 누구인가? 그것은 단지 이야기일 뿐이다. 지금 우리들이 옛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훗날 사람들도 지금을 이야기할 것이다. 뭔가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의심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뭔가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는 것은 더 웃기는 일이다. 經子史書는 허튼 소리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닦아어 전한다. 詩賦文章은 시시한 이야기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닦아어 꾸민다. 칭찬이나 비난, 伸張이나 抑壓은 엉터리 이야기지만 사람들은 닦아어 쏘리고 피한다. 어떤 때는 남을 웃기고 어떤 때는 남으로 웃는다. 남을 웃기는 사람도 다시 남으로 웃고 남으로 웃는 사람도 다시 남을 웃기니, 사람들이 서로 웃는 일이 어찌 그칠 때가 있겠는가? 《笑府》는 소화를 모은 것이다. 열세 편이 오히려 얇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보고 즐거워하겠지만 즐거워하지 마시라. 어떤 사람은 보고 성내겠지만 성내지 마시라. 고금의 세상은 하나의 커다란 웃음의 곳집이니 나와 당신은 모두 그 속에서 이야기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람이 되지 못하고, 웃지 않으면 이야기가 되지 못하며, 웃지도 이야기하지도 않으면 세상을 이루지 못한다.<sup>3)</sup>

3) (明)馮夢龍, 《小府》, 〈笑府序〉, 王利器·王貞珉(編), 《中國笑話大觀》, 第2刷(北京: 北京出版社, 1996), 334쪽: “古今來莫非話也, 話莫非笑也。兩儀之混沌開闢, 列聖之揖讓征誅, 見者其誰耶? 夫亦話之而已耳。後之話今, 亦猶今之話昔, 話之而疑之, 可笑也, 話之而信之, 尤可笑也。經書子史, 鬼話也, 而爭傳焉。詩賦文章, 淡話也, 而爭工焉。褒譏伸抑, 亂話也, 而爭趨避焉。或笑人, 或笑於人, 笑人者亦復笑於人, 笑於人者亦復笑人, 人之相笑寧有已時! 《笑府》集笑話也, 或閱之而喜, 請勿喜, 或閱之而嘆, 請勿嘆。古今世界, 一大笑府, 我與若皆在其中供人話柄。不話不成人, 不笑不成話, 不笑不話不成世界。”

이는 수많은 민중 속에서 자생되어 인간 상호간의 情誼를 증진시키고 복잡한 인간관계의 긴장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소화의 대중성을 설명한 것이다. 소화가 반영하고 풍자하는 대상은 바로 군중생활 가운데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이어서 민중이 애호하는 것을 애호하고 민중이 증오하는 것을 증오한다. 그러므로 소화는 옛사람의 풍부한 실생활의 모습과 민간의 풍속습관을 보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또한 淸朝의 石成金은 그의 《笑得好》, 〈自序〉에서 소화의 풍자성과 교훈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正言은 들으면 졸음이 오려하나 소화는 뒤질세라 들으려 한다. 今人の 常情은 대개 이미 正言으로 타일러서는 듣지 않으니 소화로써 두렵게 하면 어떠할지? 나는 이에 소화서 한 권을 짓고 評定 열거하여 미혹된 마음을 깨닫게 하니, 독자로 하여금 무릇 허물이 있고 편파적이거나 어리석고 탐욕적인 갖가지 일에 대해 나의 소화를 듣고 다 부끄러워하고 뉘우치게 하여 모두가 선량한 好人이 되게 할 것이다. 따라서 ‘笑得好’ 석 자로 본서를 이른다.<sup>4)</sup>

이와 같이 소화는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것 외로 늘 嘲諷의 목적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목표는 바로 인성의 약점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위선·기만·탐욕·호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정치의 혼란, 경제의 침체, 관리의 부패, 財主의 탐욕 등에 관련된 갖가지 일을 풍자함으로써 인간의 몽매함과 완고함을 각성시킨다. 또한 소화는 조롱으로써 질책을 대신하고 해학적인 언사로 풍자하고 권고하며, 엄숙함을 골계 속에 기탁하고 추상적인 玄理를 담론하지 않음으로써 평이하고 친근하게 그 교훈적 기능을 발휘한다.

다만, 한 가지 해명이 필요한 것은 중국의 고대소화 중에는 ‘性’과 관련

4) (淸)石成金, 《笑得好自序》, 周作人(編), 앞의 책, 146쪽: “正言聞之欲睡, 笑話聽之恐後, 今人之恒情, 夫既以正言訓之而不聽, 曷若以笑話怵之之爲得乎? 予乃著笑話一書, 詳列警醒, 令讀者凡有過愆偏私, 矇昧貪癡之種種, 聞予之笑, 悉皆慚愧悔改, 俱得成良善之好人矣, 因以笑得好三字名其書。”

된 소화가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명청시대의 소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저속하고 외설적인 불건전한 소화는 치정적 애욕, 문란한 윤리, 종욕적 생활 등 당시의 암울하고 문란했던 사회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이처럼 ‘性愛’를 언급한 소화 중에는 아름다운 연애, 자유 결혼, 그리고 건강하고 만족한 성생활에 대한 추구하고 같은 인간의 정상적인 성적 욕망과 심리를 표현한 것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소화들은 봉건사회의 위선적인 예교와 도덕에 대한 비판과 그러한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이해되며, 이는 또 당시의 성 풍속과 사회 습속을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마땅히 긍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 3. 笑話作品-생활 속의 희극예술

淸代の 民間笑話는 중국민간문학사에서 前代에 비해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매우 풍부해졌다. 그것의 의의는 단지 심미적인 희열과 심리적인 정화작용에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으니, 더욱 중요한 것은 격렬한 사회모순과의 충돌 속에서 그것은 항상 투쟁적 檄文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청대에는 많은 소화집이 간행되었다. 예를 들면, 石成金の 《笑得好》, 陳阜謨의 《笑倒》, 小石道人の 《嘻談錄》과 《嘻談續錄》, ‘吳下獨逸窩退士輯’題下の 《笑笑錄》, 俞樾의 《一笑》, 趙恬養의 《解人頤》, 李漁의 《古今笑史》, 遊戯主人 編의 《笑林廣記》, 程世爵의 《笑林廣記》 등과 같은 전문소화집은 물론 많은 소화들이 淸人들의 ‘筆記’ 저작 속에 수록되었다. 이와 함께 前代의 소화, 즉 魏 邯鄲淳의 《笑林》, 宋代의 《東坡問答錄》·《耕祿藁》, 元代의 《拊掌錄》, 明代의 《艾子後話》·《山中一夕話》·《諧語》·《笑贊》·《廣笑府》·《智囊》·《古今譚概》·《雪濤諧史》 등 수많은 소화고사집이 이 시기에 重刊되어 청대는 그야말로 소화의 집대성 시기라 일컬을 만하다.

청대의 소화를 개관하면 앞 시대의 전통소화를 계승한 측면을 지니면

서도 적지 않은 부분이 현실생활에 대한 새로운 笑談으로 단순히 명대 이전의 소화를 연역한 것과는 달랐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은 '時政笑話'의 비중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청대의 여러 소화집 중 석성금의 《소득호》는 청대 소화를 대표할 만한 전문소화집일 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의 진실한 好惡의 감정을 진솔하게 반영한 민간소화집의 결정이라 하겠다.

소화작품과 소화예술에 대한 풍부한 경험의 축적으로 명청대에는 소화작품을 내용에 따라 분류 수록한 전문소화집이 출현하게 되었다. 즉, 명대의 대표적 소화집 馮夢龍의 《笑府》는 古艷·腐流·世諱·方術·廣萃·殊稟·細娛·刺俗·閨風·形體·謬誤·日用·閨語 등 13類로 분류했고, 청대 遊戱主人의 《笑林廣記》 역시 풍몽룡의 《소부》를 참조하여 古艷·腐流·術業·形體·殊稟·閨風·世諱·僧道·貪吝·貧窶·譏刺·謬誤 등 12類로 분류했다.<sup>5)</sup> 이를 종합하면 소화는 다음과 같이 크게 3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당시의 사회생활 속에서 비교적 권위 있는 지위에서 민중에 대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官吏·富翁·儒生·僧道 등의 추악한 행위에 대한 질책, 둘째, 일반인의 智力·품성·신체상의 결함 등에 대한 풍자, 셋째, 부부의 성애, 처녀의 사고나 자태, 허풍과 과시 등을 통한 선의의 조롱 등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이처럼 명청대의 소화는 이미 사회생활의 각 분야와 각 계층에 두루 걸쳐 있었고, 봉건사회 몰락 시기의 여러 가지 갈등과 모순은 소화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석성금의 《소득호》 初集과 二集에 수록된 소화 중에서 당시 사회에서 비교적 권위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신분계층의 대표적 인물을 출현빈도 순으로 추출하여 官吏·僧道·富翁·蒙師·儒生·醫師·匠人 등의 인물형상과 그들이 반영한 사회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5) 遊戱主人(編), 《笑林廣記》(濟南: 齊魯書社, 2002), 〈前言〉, 2쪽 참조.

## (1) 官吏

《소득호》중 탐관오리를 풍자한 대표적인 소화는 〈不許看看〉·〈爛盤盒〉·〈誓聯〉·〈再出恭〉·〈舊例〉·〈瞞睡法〉·〈官妻飲叙〉·〈代綁〉·〈判棺材〉·〈有天沒日〉·〈夫人屬牛〉·〈勝似強盜〉·〈鄉人看靴形〉·〈剝地皮〉 등으로 단일 신분의 인물로서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이는 소화 〈勝似強盜〉중에 나오는 “요즘 네 사람이 타는 가마에 타고 가는 사람만 보더라도 십중팔구는 강도와 흡사하지요.(你只看如今擡在四人轎上的, 十個到(倒)有九個勝似強盜。)”<sup>6)</sup>라는 말처럼 당시 사회에서 탐관오리에 대한 일반 민중의 원망과 증오가 얼마나 컸던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土地神(剝地皮)〉은 구상이 뛰어난 소화 중의 하나다.

몹시 탐욕스러운 관리가 임기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보니, 가족 중에 웬 노인이 섞여 있어 누군지 묻자 노인이 대답했다.

“나는 자네 前任地의 토지신일세.”

왜 여기 왔는지를 묻자 노인이 대답했다.

“그 지방의 땅은 네가 꺾질까지 다 벗겨가지 않았느냐? 어찌 너를 따라오지 않을 수 있겠느냐?”<sup>7)</sup>

지방 관리가 임지에서 교묘한 수단으로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이 빈번하자 당시에는 ‘땅 가죽을 벗기다’라는 의미의 속칭 ‘剝地皮’란 말이 민간에서 크게 유행했다. 이 소화는 상상력을 발동하여 민간전설 중의 토지신을 등장시킨 뒤, 땅의 꺾질까지 모두 벗겨간 지방관 때문에 몸을 기댈 곳마저 다 빼앗겨버린 토지신의 하소연을 통해 기발하고도 예리한 수법으로 부패한 정치 현실을 고발했다.

6) 石成金(編), 《笑得好》初·二集, 〈勝似強盜〉, 王利器·王貞珉(編), 앞의 책, 604쪽.

7) 石成金(編), 《笑得好》二集, 〈剝地皮〉, 王利器·王貞珉(編), 앞의 책, 604쪽: “一官甚貪, 任滿歸家, 見家屬中多一老叟, 問此是何人, 叟曰: ‘某縣土地也。’問因何到此, 叟曰: ‘那地方土地皮都被你剝將來, 教我如何不隨來。’”



관리를 풍자한 소화 중에서 그들의 탐욕 이외에 무지와 무능 및 태만을 조소한 것도 주의 깊게 볼 만하다. 〈安眠法(瞌睡法)〉은 평소 독서를 통한 정진을 게을리 하는 관리를 조롱한 소화이다.

아기에게 젖을 물려주던 어느 관가의 유모는 아기가 울면서 좀처럼 자려하지 않아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그러자 얼른 관리에게 책 한권을 갖다 달라 했다. 관리가 어디다 쓸 것인지 묻자 유모가 응답했다.

“제가 매번 볼 때마다 관리들은 책을 들기만 하면 잠들어버리더군요.”<sup>8)</sup>

남의 집 아이에게 그 어미 대신 젖을 먹여주는 여자인 유모는 대개 순박하고 후덕한 성품의 여인으로 일반적으로 꾸밀 줄 모르는 순진한 성격의 소유자로 인식된다. 이러한 ‘유모’라는 특수한 역할을 이용하여 그녀의 평상시의 관찰을 근거로 수면과 독서 사이의 비논리적 상관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동시에 독서를 태만히 하는 나태한 관리를 절묘하게 조롱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앞에서 살펴본 《소득호》의 2종 판본 중 하나가 청대의 文字獄(筆禍)이 가장 엄격했던 乾隆年間(1736-1795)에 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냉혹한 사회환경 속에서도 《소득호》가 탐관오리의 부정한 행위를 고발하고 그들의 나태한 태도를 풍자하는 데 많은 편폭을 할애했다는 것은 신변의 위협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일반 민중의 인생에 대한 건전한 의식과 사회에 대한 강렬한 비판정신은 결코 꺾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것이라 하겠다.

## (2) 僧道

《소득호》 중에는 승려와 도사를 풍자한 소화도 상당수 발견된다. 이러

---

8) 石成金(編), 《笑得好》二集, 〈瞌睡法〉, 王利器·王貞珉(編), 앞의 책, 590쪽: “有一乳母哺養小兒, 因兒啼哭不肯安睡, 乳母無奈, 驀然叫官人快拿本書來, 官人問其何用, 應曰: ‘我每常間見官人一看書便睡着了。’”

한 소화로는 〈話不應〉·〈不吃素〉·〈聽見鈴聲〉·〈驅鬼符〉·〈搬老君佛像〉·〈齋蚊蟲〉·〈虎訴苦〉·〈門上貼道人〉 등이 수록되어 있다. 고대 사회의 승려와 도사 중에는 아결한 행실로 수행에 전념하여 일반인으로부터 높이 존경 받는 이들도 분명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그들 중에는 비행과 음행을 일삼음으로써 일반 민중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먼저 〈술은 조금 합니다만……(不吃素)〉을 보기로 한다.

스님이 어느 집 잔치자리에 同席했다. 주인은 그가 출가한 까닭으로 조심스레 물었다.

“스님, 술은……?”

스님은 멋쩍게 웃으며 답했다.

“술은 약간 합니다만 채식은 안 합니다.”<sup>9)</sup>

민간소화 중에 이러한 승려를 풍자한 것이 특별히 많은 까닭은 그들이 종교적 직분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행자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진 신망과 권력을 이용하여 민중들을 기만하고 착취했기 때문이다. 〈부적(驅鬼符)〉은 占·觀相·風水 등을 이용하여 일반 민중을 기만하는 엉터리 도사의 행위를 풍자한 대표적인 소화이다.

한 도사가 귀신에 홀려 온몸과 얼굴이 진흙투성이가 된 채 살러달라고 소리쳤다.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는 급히 달려와 얼굴을 훑아 구해 주었다. 그 도사는 매우 감사하며 말했다.

“貧道, 큰 은혜를 입어 목숨을 구했으니 귀신 쫓는 부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sup>10)</sup>

9) 石成金(編), 《笑得好》二集, 〈不吃素〉 王利器·王貞珉(編), 앞의 책, 578쪽: “有僧同至人家席上, 主人以其出家, 乃問曰: ‘師父可用酒否?’ 僧笑曰: ‘酒倒也用些, 只不吃素.’”

10) 石成金(編), 《笑得好》初集, 〈驅鬼符〉, 王利器·王貞珉(編), 앞의 책, 586쪽: “一道士被鬼迷住, 竟將淤泥塗滿身面, 道士高喊救命。傍人聞知, 忙來啐臉救活。道士感激曰: ‘貧’

이 소화에 대해 편자 석성금은 말미의 평어에서 “혹자가 묻기를 ‘그런 부적이 있다면 왜 스스로는 구하질 못하는가?’ 하니 그 도사가 대답하길 ‘나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남을 돌보는 사람입니다.’(或問：‘既有此符，何不自救?’答曰：‘我是顧人不顧己的。’)”<sup>11)</sup>라고 부언함으로써 엉터리 도사의 황당무계한 술수를 조롱한 소화를 또 다른 하나의 속편격인 소화로 거듭 풍자했다. 이 점이 바로 《소득호》가 다른 소화집과 구별되는 우수성이자, 그것이 민간에서 크게 환영받은 이유 중의 하나이다.

### (3) 富翁·貧者·乞人

《소득호》 중에는 평생토록 오직 돈만 굶어모은 수전노의 인색한 행태나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자제의 아둔한 모습을 풍자한 소화 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소화들과 함께 빈자나 걸인들의 과장되고 일그러진 사고와 상상을 통해 보여주는 가지지 못한 자의 서러움과 부러움을 희화화한 소화들도 주의 깊게 볼 만하다. 이러한 소화로는 〈愿變父親〉·〈啞子說話〉·〈臭得更恨〉·〈討飯〉·〈打個半死〉·〈少米少床〉·〈狗咬〉·〈喝風扇煙〉·〈折錢買餅〉·〈人參湯〉·〈四時不正〉·〈外人好看〉·〈生豆腐〉·〈騎馬敗家〉·〈米壇〉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인삼탕(人參湯)〉은 부잣집 자제의 철모르는 생각을 비웃은 소화이다.

부잣집 자제가 아침 일찍 문을 나서면서 어떤 가난한 짐꾼이 땅바닥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이 자는 왜 땅바닥에 엎드리고 있는 거요?”

옆에 있던 사람이 대답했다.

“이 사람은 밥을 벌어들이지 못해 배가 고파 땅바닥에 누워 쉬고 있는 거랍니다.”

그 자제가 말했다.

“밥을 먹지 못한다면 어찌서 인삼탕 한 잔 먹지 않고 나온 거요? 온종일 속이 든

---

道承救命大恩，今有驅鬼符一道奉謝。”

11) 위와 같음.

든할 텐데.”<sup>12)</sup>

자신의 부유하고 풍요로운 환경만 생각하고 굶주리고 고통 받는 자들의 처지는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잣집 자체는 가난한 주위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그의 철없는 말은 비웃음을 사기에 충분하다. <병어리도 말을 하네(啞子說話)>는 물질에 대한 가지지 못한 자의 불만을 거짓 병어리 흉내를 내며 구걸하는 거지를 통해 표출한 소화이다.

한 거지가 병어리 행세를 하며 거리에서 구걸을 했다. 늘 손가락으로 동냥 그릇을 가리키고는 다시 자신의 입을 가리키며 “버, 버……” 하곤 했다. 하루는 엽전 두 푼으로 하루 종일 먹을 술을 사면서 말하길,

“좀 더 주시오.” 하니 술집 주인이 물었다.

“자네는 올 때마다 말을 못하더니만 오늘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그러자 그 거지가 말했다.

“접때는 돈이 없어 말을 못했지만, 오늘은 두 푼이 생기고 보니 말이 절로 나오네요.”<sup>13)</sup>

경제적으로 사회의 최하층민인 거지를 통해 세상살이의 냉혹한 현실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이 소화에 대해 석성금 역시 “지금은 순전히 돈이 말을 하지 사람이 말을 하는 곳이 어디 있는가.(而今純是錢說話, 那裡有個人說話.)”<sup>14)</sup>라고 부연함으로써 황금만능의 냉혹한 사회 병폐를 날카롭

12) 石成金(編), 《笑得好》初集, 〈人參湯〉, 王利器·王貞珉(編), 앞의 책, 585쪽: “有富貴公子, 早晨出門, 見一窮人挑擔子, 臥地不起, 問人曰: ‘此人因何卧倒?’ 傍人答曰: ‘這人沒得飯吃, 肚餓了, 倒在在地上歇氣的。’ 公子曰: ‘既不會吃飯, 因何不吃一盞人參湯出門?’ 也飽得好大半日。”

13) 石成金(編), 《笑得好》初集, 〈啞子說話〉, 王利器·王貞珉(編), 앞의 책, 569쪽: “有一叫化子, 假裝啞子, 在街市上化錢, 常以手指木碗, 又指自嘴曰: ‘啞啞。’ 一日拿錢二文買酒吃盡曰: ‘再添些酒與我。’ 酒家問曰: ‘你每常來, 不會說話, 今日因何說起話來了麼?’ 叫化子曰: ‘向日無錢, 叫我如何說得話? 今日有了兩個錢, 自然會說了。’”

14) 위와 같음.

게 지적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면서도 타인에게는 박정하고, 인색한 자에 대해 풍자와 비판의 태도를 취한 것은 고금의 모든 소화가 그러했다. 그러나 이러한 소화가 후대로 갈수록 양적으로 더욱 많아지고 질적으로 더욱 정교해졌다는 것은 빈부격차가 더욱 커지고 사회윤리가 더욱 희박해지게 되었다는 징표일 것이다. 짧은 소화 속에서 갈수록 커져만 가는 가지지 못한 자의 푸념과 원성은 바로 청대의 사회 문제가 심각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 (4) 蒙師 · 儒生 · 醫師 · 匠人

《소득호》 중에는 또 蒙師 · 儒生 · 醫師 · 匠人 등과 같이 일반인이 닦지 못한 학식이나 특수한 기능을 가진 자들을 풍자한 소화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이러한 소화들에 등장하는 풍자인물들은 모두가 당시 사회에서 일반 민중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특별한 학식이나 의술 · 기술 등을 빙자하여 선량한 사람들을 기만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심지어는 만회하기 어려운 해악이나 손실을 끼침으로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화에서는 민간의 일상적인 생활의 숨결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川’字 밖에 몰라(川字)〉는 글방 선생의 무식함을 폭로 · 조롱하는 소화로 민간에서 오랫동안 구전되어 내려오던 대표적인 작품이다.

어떤 글방 선생이 글자라고는 ‘내 川’字 밖에 몰랐다. 때마침 한 제자가 올린 편지를 보고, 그 속에서 ‘川’자를 찾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했다. 언거푸 몇 장을 들쳐도 ‘川’자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던 중 문득 ‘석 三’자를 발견하고는 ‘三’자를 가리키며 투덜댔다.

“온 데를 다 찾아도 안 보이더니, 이놈이 글씨 여기 자빠져 있네 그러.”<sup>15)</sup>

이는 과거시험에 낙방한 선비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남으로써 봉건사회에서의 축적된 과거제도의 폐습을 고발함과 동시에, 그나마 호구지책으로 삼은 ‘蒙師’의 역할마저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글방 선생들이 남의 집 자제들의 글공부마저도 가르치던 가증스러운 행위를 풍자한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위선적인 도학자들을 풍자한 소화 <논쟁과 매도(爭罵)>는 당시의 빼뜯어진 학문 풍토를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던 중 서로 욕을 했다. 저쪽 사람이, “당신은 天理도 모르는구먼!”이라 하자 이쪽 사람은, “천리를 모르는 건 당신이오!”라고 했다. 그러자 저쪽 사람이, “당신은 양심도 없구먼!”이라 하니 이쪽 사람은, “양심이 없는 건 바로 당신이오!”라고 했다.

마침 지나가던 한 스승과 제자가 이 광경을 보았다.

“저 두 사람이 학문을 논하는 걸 잘 들어두어라.”라고 스승이 제자에게 일러주었다.

“저렇게 다투고 욕하는 것을 어찌 학문이라 하십니까?”라고 제자가 묻자 스승이 대답했다.

“천리를 말하고 양심을 말하니 어찌 학문이 아니겠느냐?”

“학문을 논한다면 어찌 다투고 욕을 한답니까?”라고 제자가 되물자 스승이 또 대답했다.

“너도 한번 생각해 보아라. 오늘날 학문을 논하는 자들이란 모름지기 작은 이익이라도 될 만한 것을 볼라치면 서로 다투고 때리니 올바른 천리와 양심을 가진 자가 어디 있더란 말이냐?”<sup>16)</sup>

15) 石成金(編), 《笑得好》二集, 〈川字〉, 王利器·王貞珉(編), 앞의 책, 606쪽: “一蒙師止識一川字, 見弟子呈書, 欲尋川字教之, 連揭數葉無有, 忽見三字, 乃指而罵曰: ‘我各處尋你都不見, 你到睡在這裏。’”

16) 石成金(編), 《笑得好》二集, 〈爭罵〉, 王利器·王貞珉(編), 앞의 책, 607쪽: “兩人途中相罵, 彼曰: ‘你沒天理。’此曰: ‘你更沒天理。’彼曰: ‘你喪良心。’此曰: ‘你更喪良心。’有師徒過路聞之, 謂徒曰: ‘汝聽這兩人講得好學。’徒曰: ‘這等爭罵, 何爲講學?’師曰: ‘說天理, 說良心, 豈非講學?’徒曰: ‘既講學, 爲何爭罵?’師曰: ‘你看而今講道學的人, 見了些須微利, 就相爭相打, 何曾有個真天理良心的?’”

천지자연의 합당한 이치를 캐고 올바른 양심을 길러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일신상의 이익만을 도모하고자 한 당시 학자들의 염치를 모르는 뻔뻔한 태도가 길을 가던 두 사람이 다투는 가운데 등장한 어느 스승과 제자간의 솔직한 대화로 거침없이 폭로되었다. 이 역시 일반 민중들의 궁핍한 생활은 외면한 채 일신의 부귀영화만 생각하는 학자들에 대한 비판이자, 당시의 사회적 모순에 대한 고발이라 하겠다.

다음 소화 역시 상식을 초월하는 황당함으로써 풍유적 의미를 담고 있는 돌팔이 의사에 대한 풍자이다.

어떤 의원이 곱사등이를 고칠 수 있다고 장담했다.

“활처럼 굽은 사람, 새우같이 굽은 사람, 머리가 허리에 닿을 만큼이나 굽은 사람이라도 나에게 치료를 받기만 하면 금방 몸이 꼳꼳해집니다.”

한 꺾추가 그 말을 곧이듣고 치료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의원은 큰 널빤지 두 판을 찾아와서 하나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꺾추를 반듯하게 눕힌 다음, 또 한 판을 덮고는 양끝을 굽은 노끈으로 단단히 동여맸다.

그 꺾추는 몹시 아파하며 멈추라고 고함을 쳤으나, 의원은 들은 체도 않고 발에 힘을 더해 계속 밟기만 했다. 꺾추는 등이 펴짐과 동시에 죽고 말았다. 사람들이 의원을 붙잡아 두들겨 패자 그 의원 하는 말이,

“나는 곱사등이를 고칠 줄만 알뿐이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내 알 바 아니요.” 라는 것이다.<sup>17)</sup>

이 소화는 얼핏 보아서는 단순히 흥미 위주의 황당무계한 말처럼 들릴 뿐이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속뜻이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다.

17) 石成金(編),《笑得好》二集,〈醫駝背〉,王利器·王貞珉(編). 앞의 책, 592쪽: “有一醫人,自誇能治駝背:‘雖彎如弓,曲如蝦,卽或頭環至腰,但請我一治,卽刻筆直.’有駝背人信其言,請其治之.乃索大板二片,以一板放地,令駝人仰睡板上,又將一板壓上,兩頭用粗繩着緊收捆,其駝人痛極喊聲求止,醫總不聽,反加足力重躡.駝背隨直,亦卽隨死.衆揪醫打.醫者曰:‘我只知治駝背,我哪裏管人的死活呢.’”

즉, 일차적으로 돌팔이 의사의 엉터리 의술을 조소하면서도, 나아가서는 작은 일에 집착함으로써 오히려 큰일을 그르치고 마는 사람의 어리석음, 또는 자신의 목적 달성만을 생각할 뿐 남에게 가해지는 고통과 해악을 백안시하는 잔인성을 풍자한 것이다. 이는 바로 일상적 규칙이나 도덕적 규범과 부합하지 않는 실생활 속에서의 황당하고 불합리한 행위에 대한 폭로요, 비판이라 하겠다.

《소득호》에 등장하는 특징적 골계인물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구두수선공·재봉사·목공 등과 같은 각종의 특정 기능을 가진 匠人들이 있다. 악덕 상환으로 고객을 기만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상인들 또한 《소득호》의 중요한 풍자인물 중 하나이다. 여기서는 구두수선공의 얄은피를 조롱한 소화〈구두창(尙落戶內)〉을 보기로 한다.

한 구두장이가 평소 구두창 한 벌만 가지고 손님 구두의 창갈이를 해주고 있었다. 알고 보니 손님이 구두창을 갈고 문을 나가면 어김없이 구두창이 금방 떨어지니 그때마다 뒤를 따라가 구두창을 주워 와서 밀천으로 삼는 것이다.

하루는 한 손님의 구두창을 갈아주고 곧바로 뒤를 따라 갔지만, 아무리 따라가도 구두창을 다시 찾을 수 없자 울먹이며 말했다.

“밀천이 날아가 버렸군.”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 구두창은 자신의 구둣방 바닥에 이미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sup>18)</sup>

소화문학은 단순한 편폭으로 골계감을 일으키고 해학과 조소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므로 고도의 창작기교를 동원한다. 소화를 일종의 독립된 문학체제로 볼 때 그것은 어느 정도 보편화된 창작기교를 구사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과장’과 ‘허풍’은 고대 소화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사방식이자 창작기교로서 사물의 특색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의 임의

18) 石成金(編), 《笑得好》二集, 〈尙落戶內〉, 王利器·王貞珉(編). 앞의 책, 607쪽: “一皮匠生平止用皮底一雙, 凡替人尙鞋, 出門必落, 每每尾其後, 拾取回來, 以爲本錢. 一日尾之不獲, 泣曰: ‘本錢送斷了.’ 及至歸家, 見底已落在自己戶內.”



확대 또는 축소의 방식으로 人事의 諸현상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킴으로써 평상시의 정상적인 생활방식과의 대비를 통해 자연스럽게 골계의 감정을 유발한다. 위 소화에서의 손님이 구둣방을 채 나서기도 전에 갈아준 구두창이 떨어져버렸다는 상식을 초월한 악덕 상흔에 대한 과장의 의미는 진실성의 결여에 대한 신랄한 풍자로서 그 웃음 이면에는 작자의 숨은 풍자적 의도와 깊은 도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 소화에 대해 편자 석성금이 평한 바, “각 업종의 장사 수완에는 그 자체의 본분과 생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 비웃어서는 안 된다. 만약 허위로 기만하여 이미 양심을 잃어버렸다면 조소함으로써 회개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做各行買賣手藝, 皆本分生理, 切不可炒笑. 若以虛僞哄騙, 良心已喪, 則不可不笑令悔改.)”<sup>19)</sup>라고 한 것처럼 악덕 상인(또는 장인)에 대한 당시 민중들의 혐오감과 증오심을 반영했다.

## 나가며

문학의 大路에서 소화는 그저 ‘小道’일 따름이었던지라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리 중시되지 못했다. 모두들 그저 한번 웃고 지나칠 뿐, 그 속에 내재된 깊은 의미를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색해 보는 이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소화는 많은 사람들의 一笑를 구하는 것 외로 분명 더 큰 효용가치가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 사이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심지어 더욱 큰 사회적 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오늘날 학술연구의 입장에서 우리는 짧으면서도 친근한 이 소화문학으로부터 복잡하면서도 심각한 그 인생의 의미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을 매료시키는 소화의 작용은 단순히 소화 자체가 지닌 웃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상적·도덕적 가치와 함께 미학적·예술적 가치도 동시에 함유하기 때문이다.

---

19) 위와 같음.

## 참고문헌

- [王利器] 編. 中國笑話書. 第8版. 臺北: 世界書局, 1985.
- [周作人] 編. 明清笑話四種. 臺北: 華正書局, 1987.
- 中國民間文學研究會安徽分會 編. 民間笑話大觀. 第4刷. 合肥: 黃山書社, 1989.
- 段寶林. 笑話—人間的喜劇藝術. 第3刷.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6.
- 王利器·王貞珉 編. 中國笑話大觀. 第2刷. 北京: 北京出版社, 1996.
- 陳維禮·郭俊峰 編. 中國歷代笑話集成. 全5冊. 長春: 時代文藝出版社, 1996.
- 唐子恒 等 編. 中國笑林博覽. 第二刷.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1997.
- 張天若·江村 編. 古代幽默經典. 北京: 華文出版社, 1998.
- 李曉·愛萍 等 編. 明清笑話十種. 全二冊. 西安: 三秦出版社, 1998.
- (清)遊戲主人·程世爵 編. 笑林廣記二種. 廖東 輯校. 第二刷. 濟南: 齊魯書社, 1998.
- 白嶺 編. 中國笑話庫.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2000.
- (清)游戏主人 編. 笑林廣記. 濟南: 齊魯書社, 2002.